

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('23~'27)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

- 환자 중심, 현장 중심 심뇌혈관질환 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-

< 요약본 >

보건복지부(장관 조규홍)는 7월 5일(수) 10시 코리어나호텔(서울특별시 중구 소재)에서 「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('23~'27)」(안)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.

공청회는 질병 부담과 중증도가 높아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손실을 유발하는 심뇌혈관질환의 종합적·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부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2차 종합계획*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* 「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5년 주기 수립

이번 종합계획은 지난 2006년 제1기 심뇌혈관질환 종합대책 수립 이후 4번째 종합계획으로서,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계획(안)을 마련하였다.

* '17년 「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 이후 2번째 종합계획

제2차 종합계획(안)은 '24시간 어디서나 심뇌혈관질환 걱정 없는 건강한 일상'을 비전으로,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환자 중심 의료이용 체계 및 문제해결형 치료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주요 과제들을 담았으며, 심뇌혈관질환의 선행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관리 강화와 근거 기반의 정책 구현을 위한 통계 및 연구개발(R&D) 투자 강화 과제 등을 담았다.

보건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반영하여 종합계획(안)을 보완하고, 심뇌혈관질환 관리위원회(위원장: 보건복지부 제2차관)의 심의를 거쳐 최종확정 할 계획이다.

< 상세본 >

< 중증·응급질환으로서 심뇌혈관질환의 중요성 >

- ① 중증+응급 발생 질환 중에서도 매우 짧은 골든타임 (심근경색 120분, 뇌졸중 180분)
- ② 효과적 의료 개입으로 사망 예방 가능성 높음 (심뇌 예방 가능한 사망분률 37.6%)
- ③ 한국인 질병 부담의 상당 부분 차지 (순환기계 '20년 19조 2천억 원, 연평균 4.7% 증가)
- ④ 지역적 격차 심각(급성심근경색 지역친화도 대구 94.3% vs 전남 54.1%)
- ⑤ 대표적 병원 의료 인력 소진 분야 (연간 90일 당직, 당직 익일 외래, 시술 등)

보건복지부(장관 조규홍)는 7월 5일(수) 10시 코리어나호텔(서울특별시 중구 소재)에서 「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('23~'27)」(안)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.

공청회는 심뇌혈관질환 관리 정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 가능하도록 온라인으로도 생중계* 된다.

* 유튜브 '보건복지부' 채널 통해 실시간 생중계

공청회는 심뇌혈관질환 관리 중요성에 대한 이해영 단장(심뇌혈관질환 정책 2.0 기획단)의 발표와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(안) 비전 및 추진 방향에 대한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의 발표 이후, 유관학회 전문가*가 참여하는 패널토의와 종합토의로 진행된다.

* 건국대 이건세 교수(좌장), 대한심장학회 홍그루 이사,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정의석 이사, 대한뇌졸중학회 배희준 이사장, 대한신경외과학회 신승훈 이사, 강원대학교병원 이해진 교수(제2차 종합계획 연구책임자)

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은 2017년 「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정 이후 2번째 종합계획이며, 법률 제정 이전에 2차례 심뇌혈관질환 종합대책(1기 '06~'10, 2기 '11~'15)을 수립한 바 있다.

2차 종합계획(안)에서는 신속한 중증·응급 심뇌혈관질환 경로 확보, 진료자원 기반(인프라)의 최적의 연계, 환자 중심의 선행질환관리 체계 구축 등을 목표로 5개 영역, 총 15개 추진 과제를 담았다.

* ①환자 중심의 의료 이용체계 확보, ②중증·응급 심뇌혈관질환 치료 대응체계 확보, ③지역사회 예방·관리체계 강화, ④과학적 정책 기반 확립, ⑤수평적 협력 거버넌스 구축

1차 종합계획('18~'22)과 비교하여 2차 종합계획은 지난 1월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 대책 이행 차원에서 골든타임이 있는 급성기 치료 대응에 중점을 두고, 응급증상에 대한 환자 인지 역량을 제고하고 사전에 의료 이용을 준비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등 환자 중심 의료이용체계 구축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전문치료 역량 제고, 권역센터를 보완할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신규 도입 등 문제해결형 중증·응급 심뇌혈관질환 치료 대응체계 확보 과제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.

보건복지부 박항 공공보건정책관은 공청회 개최사를 통해 “심뇌혈관질환의 골든타임을 사수할 수 있는 최적의 인력 활용 방안, 치료 접근성, 편의성을 높이는 이용체계 개선 방안 등 심뇌혈관질환의 전주기에 대응하는 주요 과제들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과 보완을 거쳐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<붙임> 1. 공청회 개요
2. 공청회 포스터

담당 부서	공공보건정책관 질병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한숙 (044-202-2510)
		담당자	서기관	신태환 (044-202-2509)

붙임 1

공청회 개요

- 일시 : 2023년 7월 5일(수) 10:00~12:00
- 장소 : 코리아나호텔 다이아몬드홀 (서울 시청역 소재)
※ Youtube ‘보건복지부’ 채널 생중계
- 참석자 : 심뇌혈관질환 관련 유관학회, 협회 등 전문가 및 국민
- 프로그램 진행 순서

사회: 정근화 교수(심뇌혈관질환관리 정책2.0 기획단)

시간	주요 내용	발표 및 토론자
10:00~10:05 (5분)	개회	- 개회사 :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
10:05~10:15 (10분)	심뇌혈관질환 관리 중요성	- 이해영 심뇌혈관질환관리 정책2.0 기획단장
10:15~10:45 (30분)	제2차 심뇌종합계획(안) 비전 및 추진방향	- 김한숙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
10:45~11:45 (60분)	전문가 패널토의	[좌장] 이건세 교수 (건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) [패널] 홍그루 총무이사 (대한심장학회) 정의석 기획홍보위원장 (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) 배희준 이사장 (대한뇌졸중학회) 신승훈 정책이사 (대한신경외과학회) 이혜진 교수 (강원대학교병원, 2차 종합계획 연구 책임자)
11:45~12:00 (15분)	종합토의	- 패널 김한숙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, 권상희 질병관리청 만성질환예방과장, 이해영 심뇌혈관질환관리 정책 2.0 기획단장

「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(’23~’27)」 공청회

▶ YouTube ‘보건복지부’채널 생중계

<https://youtube.com/live/4w4rglvmbmm?feature=share>

- 일 시 : 2023년 7월 5일(수) 10:00~12:00
- 장 소 : 코리아나호텔 다이아몬드홀 (서울 시청역 소재)
- 참석자 : 심뇌혈관질환 관련 유관학회, 협회 등 전문가 및 국민
- 프로그램 진행 순서

사 회 정근화 교수(심뇌혈관질환관리 정책 2.0 기획단)

시간	주요 내용	발표 및 토론자
10:00~10:05 (5분)	개회	개회사 박 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
10:05~10:15 (10분)	심뇌혈관질환 관리 중요성	이해영 심뇌혈관질환관리 정책2.0 기획단장
10:15~10:45 (30분)	제2차 심뇌종합계획(안) 비전 및 추진방향	김한숙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
10:45~11:45 (60분)	전문가 패널토의	좌 장 이건세 교수 (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) 패 널 • 홍그루 총무이사 (대한심장학회) • 정의석 기획홍보위원장 (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) • 배희준 이사장 (대한뇌졸중학회) • 신승훈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정책이사 (대한신경외과학회) • 이해진 교수 (강원대학교병원, 제2차 종합계획 책임연구자)
11:45~12:00 (15분)	종합토의	패널 전체 김한숙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 권상희 질병관리청 만성질환예방과장 이해영 심뇌혈관질환관리 정책2.0 기획단장

|주최|  보건복지부

|주관| 심뇌혈관질환관리 정책 2.0 기획단(서울대학교병원)